

수능 심화 노트

생활과 윤리

조정호



목표

‘생활과 윤리’는 쉬운 주제와 어려운 주제가 선명히 갈리는 과목입니다. 고득점을 위해서는 어려운 주제만을 골라 깊이 있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책은 수능에서 안정적으로 1등급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어려운 주제만을 골라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참고용이 아니라 수능 시험에 바로 적용할 필수 지식을 다룹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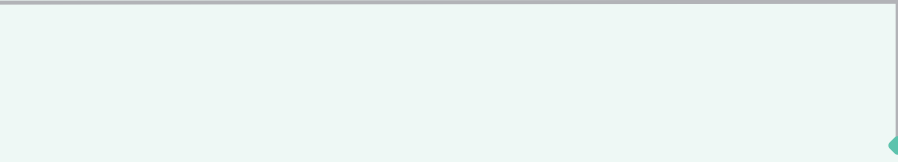
구성

1. 핵심 기출 문제

먼저 평가원 기출 문제를 제시하고 각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어느 수준으로 공부해야 할지를 파악합니다.

2. 심화 학습

고난이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알아야 할 내용을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불필요하게 깊이 들어가지 않도록 유의하였습니다. 가급적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설명하듯이 서술하였습니다.



활용법

3. 필기 노트

수험생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판서를 그대로 책에 실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학생은 필기 노트만 읽어도 됩니다. 하지만 필기 노트를 보면서 심화 학습 글을 함께 읽으면 내용 이해가 풍부해질 것입니다. 청색으로 쓰인 부분은 보충적이거나 세부적인 내용을 표시한 것입니다. 붉은색은 중요함을 의미하고 주황색으로 쓰인 부분은 내용 이해를 위해 필요하지만 시험에 언급될 것 같지 않은 참고 사항입니다.

4. Quiz

심화 학습한 내용을 O, X 퀴즈로 확인합니다. 수능 시험에 선지나 보기로 등장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책은 심화 학습에 초점을 둔 개념서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기본 개념서와 기출 문제집을 함께 공부하면 더 도움이 됩니다.



◆ 1	환경 윤리	007p
◆ 2	사회 정의	043p
◆ 3	법적 정의와 사형 제도	071p
◆ 4	시민불복종	087p
◆ 5	니부어의 사회윤리	103p
◆ 6	해외 원조	115p

◆ 7	영구평화론	131p
◆ 8	전쟁에 관한 입장	143p
◆ 9	윤리학의 구분	157p
◆ 10	공리주의, 의무론, 자연법 윤리	169p
◆ 11	책임윤리	185p
◆ 12	덕윤리, 배려윤리, 담론윤리	197p

1

환경 윤리

- 도덕적 지위, 도덕적 권리, 도덕적 고려 대상, 도덕적 행위 주체...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하지?
- 수단적 가치, 본래적 가치, 내재적 가치, 고유의 선, 이런 게 뭐야?
- 쾌감감수능력, 삶의 주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뭐야?
- 테일러가 말한 생명 공동체와 레오폴드가 말한 생명 공동체가 같은 거야?
- 레오폴드가 개체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 거야 안 한 거야?
- 심층 생태주의와 레오폴드의 생태중심주의는 뭐가 다른 거지?
- 개체주의는 뭐고 전일주의는 뭐야? 환경 파시즘은 또 뭐지?
- 테일러는 생명중심주의자인데 자연 존중을 주장할 수 있어?
- 슈바이처의 생명의 동등성과 차등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지?
- 싱어는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 거야, 안 한 거야?
- 동물의 권리는 오직 레건만 되고, 싱어는 안 되는 거야? 테일러는?
- 레오폴드가 말하는 대지가 뭐야? 생명 공동체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 생태중심주의에서만 자연이 상호의존체계라고 주장하는 거야?
- 레건이 의무론이야? 싱어는? 테일러는? 슈바이처는?
- 생태계 안정을 위해 인위적으로 간섭하는 것을 레오폴드는 찬성이야 반대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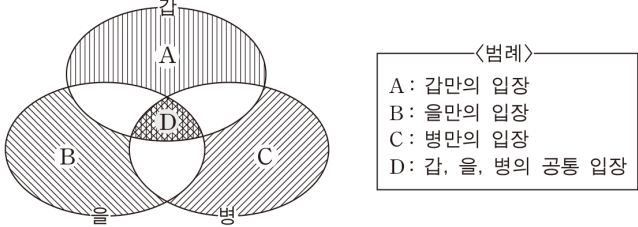
제 1 강

환경 윤리

핵심 기출 문제(1)

〈2014학년도 수능〉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배치된다. 왜냐하면 이는 인간의 도덕성을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을: 고통이나 쾌락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은 한 존재자가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위한 필요충분 조건이다. 병: 인간은 자기가 도울 수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도와주고 어떤 생명체에도 해를 끼치지 않을 때만 진정으로 윤리적이다.
(나)	

—〈보기〉—

- ㄱ. A: 동물 학대 금지는 간접적으로만 인간의 의무에 속한다.
 ㄴ. B: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 관점에서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ㄷ. C: 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므로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ㄹ. D: 인간은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이다.

-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갑은 칸트입니다. 그는 도덕적 고려 대상은 오직 인간이라고 생각했고 동물과 관련하여 인간에 대한 의무는 있지만 동물에 대한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입장은 인간중심주의에 해당합니다. 을은 싱어입니다. 그는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는 이익관심을 갖는다고 보고, 모든 존재의 이익을 평등하게 대우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동물중심주의에 해당합니다. 병은 슈바이처입니다. 그는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는 생명외경사상을 가지고 있었고 도덕판단에 있어서도 생명을 고양하는 것을 선으로, 생명을 해치는 것을 악으로 규정했습니다. 그의 입장은 생명중심주의에 해당합니다.

- ㄱ. 동물 학대 금지가 동물에 관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라고 주장한 사람은 칸트입니다. 싱어와 슈바이처에게는 이것이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입니다.
- ㄴ. 인간과 동물을 도덕적 관점에서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은 싱어와 슈바이처의 공통 입장입니다.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으로 동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은 기본적으로 동등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ㄷ.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봅니다. 식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는 것은 칸트와 싱어는 아니고 슈바이처의 입장에만 해당합니다.
- ㄹ. 갑, 을, 병 모두 인간이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정답 ④

심화 학습

[질문1] 도덕적 고려 대상이란 무엇이며 이에 대한 주요 사상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도덕적 지위를 갖습니다.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도덕적 고려 가능성(considerability)을 지닌 존재입니다. 이는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선 또는 악인지 판단할 수 있는, 적어도 이와 같은 도덕 판단의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합니다. 도덕적 지위를 가진 존재들의 공동체가 도덕 공동체입니다. 도덕적 지위는 도덕 공동체 안에서의 위치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도덕적 고려 대상과 관련되어 있을 뿐, 직접적인 고려 가능성이 없는 간접적 대상에게는 도덕적 지위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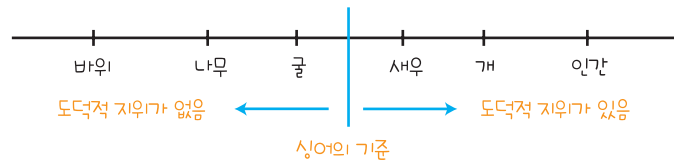
칸트는 오직 인간들 사이에서만 도덕 공동체가 형성되고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르면 동물에게 하는 행위 중에 선한 행위가 있고 악한 행위가 있는데, 이것은 인간과 동물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발생한 선악이 아니고 동물과 관련하여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이처럼 동물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으므로 인간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척추신경계가 발달해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므로 굴과 새우의 중간쯤에 도덕적 지위의 경계선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레건은 삶의 주체인 동물에게는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보며 도덕적 권리가 있는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싱어와 레건은 모두 동물중심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슈바이처는 생명을 지닌 존재,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는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고 합니다. 이들의 입장은 생명중심주의입니다.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이를 생태중심주의라고 합니다.

〈도덕적 지위〉

○ 의미

-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은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도덕적 고려 가능성(considerability)을 지닌 존재
- 도덕적 고려 대상과 관련되어 있을 뿐, 직접적 고려 가능성이 없는
간접적 대상은 도덕적 지위가 없음.

(예) 싱어 : 고통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는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 도덕적 지위의 대상(범위)에 대한 다양한 입장

- 칸트 : 자유롭고 이성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자율적인 존재
⇒ 인간중심주의
- 싱어 : 고통감수능력을 지닌 존재
- 레빈 : 삶의 주체인 존재] ⇒ 동물중심주의
- 슈바이처 : 생명을 지닌 존재
- 테일러 :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 ⇒ 생명중심주의
- 레오폴드 : 생태계 전체 ⇒ 생명중심주의

[질문2] 내재적 가치란 무엇입니까?

○ 도구적(instrumental) 가치

여기 볼펜이 한 자루 있습니다. 필기감이 좋아서 소중하게 여기고 사용해왔는데 이제 잉크가 다 떨어졌습니다. 이 볼펜은 더 이상 나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이 볼펜은 잘 써질 때에는 가치가 있는 물건이었으나 잉크가 다 떨어진 뒤에는 가치 없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 볼펜에게 있었다가 지금은 없어진 가치는 도구적 가치입니다. 도구적 가치의 척도는 유용성입니다.

자연을 자원으로만 보는 것은 자연의 도구적 가치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입니다.

○ 목적적(intrinsic) 가치 (= 본래적 가치)

박물관 전시실에 골동품 도자기가 하나 있습니다. 금이 가고 낡아서 물이나 음식을 담을 수 없는 그릇입니다. 지금은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는 그릇이지만 사람들은 이 도자기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가치는 인간에게 상징적, 미학적, 문화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받는 가치입니다. 유용성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가치를 목적적 가치라고 합니다.

여기 만 원짜리 지폐가 한 장 있습니다. 이 돈은 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도구적 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적 가치의 측면에서 보면 천 원짜리 열 장과 만 원짜리 한 장은 같은 정도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평생 처음으로 일해서 번 돈 만 원 짜리 한 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돈은 천 원짜리 열 장과 바꾸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 원의 도구적 가치 그 이상의 상징적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돈은 도구적 가치와 아울러 목적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리산에 방사된 반달가슴곰은 우리에게 도구적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들에게는 목적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적 가치는 어디까지나 인간이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에 인간이 없다면 지리산 곰의 목적적 가치도 사라집니다. 이처럼 목적적 가치는 인간의 평가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인 내재적 가치와 구분됩니다.

○ 내재적(inherent) 가치

여기에 아름다운 꽃이 있다고 해 봅시다.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살아남은 마지막 인간입니다. 내일이면 나도 죽습니다. 내가 만약 오늘 이 꽃을 짓밟는다면 이것은 부도덕한 행위일까요? 어차피 내일이 되면 이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간이 아름답다고 평가해주기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이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인간이 없는 세상에서 꽃은 가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꽃을 짓밟는다고 하여도 그 행위를 부도덕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생각한다면 이 꽃의 목적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재적 가치는 인간의 평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갖는 가치입니다. 꽃의 아름다움이 내재적 가치라면 인간이 있든 없든 그 가치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상황에서 꽃을 짓밟는 행위는 꽃의 내재적 가치를 파괴하는 부도덕한 행위입니다.

동물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동물에게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설득력있게 제시해야만 합니다. 레건과 같은 동물권리론자는 삶의 주체인 동물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레건에 따르면 싱어가 주장하는 쾌고감수능력은 동물이 인간의 유용성과 독립적으로 고유한 가치를 갖는다는 점을 정당화하는 근거는 될 수 있지만 내재적 가치를 정당화하는 근거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테일러와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에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상의 입장은 오직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는 인간중심주의를 벗어나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도 내재적 가치가 있음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탈인간중심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중심주의에 기초하여 환경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패스모어와 같은 온건한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자연의 내재적 가치는 인정하지 않지만 목적적 가치는 인정합니다. 이에 비해 생태중심주의자들은 대체로 목적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보며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인간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가치는 무의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치의 종류>

1. 도구적 가치

- 유용성
- 그 자체로서의 가치가 아님
(예) 자연을 자원으로만 보는 관점
 - 자연의 도구적 가치만 인정, 자연은 인간을 위한 수단일 뿐
 - 자연의 내재적 가치 부정

2. 목적적(intrinsic) 가치 (=본래적 가치)

- 유용성과 무관하게 인간이 부여한 가치
- 상징적, 미학적, 문화적 가치 등 고유한 가치
(예) 1. 알바하서 평생 처음 번 돈 만 원 짜리 한 장
 - 상징적 가치가 있음
 - 천 원 짜리 10장과 안 바꿈
(예) 2. 지리산 반달곰
 - 도구적 가치는 없으나 우리가 소중한 여깁
목적적 가치가 있음

3. 내재적 (inherent) 가치

- 인간의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갖는 가치
cf) 도구적, 목적적 가치는 인간의 가치 평가에 의존
- 목적적 가치는 시간에 따라 변하지만 내재적 가치는 불변
- 사람이 없어지면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는 소멸하나 내재적 가치는 불변
(예) 내가 지구의 마지막 인간이고 내일 죽는다면 죽기 전에 꽃을 짓밟아도 되는가?
⇒ 꽃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는 입장에서는 짓밟는 행위를 반대

※ 목적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도 있음.

[질문3] 칸트를 비롯한 인간중심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인간중심주의는 첫째, 인간을 본질적으로 자연의 다른 존재보다 우월한 존재로 봅니다. 둘째, 인간을 생태계의 한 구성원이라기보다는 자연과 분리되어 자연을 객체로 대하는 주체로 간주합니다. 셋째,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에게 얼마나 유용한지를 기준으로 자연의 가치를 평가하는 도구적 자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넷째, 도덕적 권리는 오직 인간만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인간중심주의에 따르면, 오직 인간만이 도덕적 지위를 갖습니다. 자연의 다른 모든 존재들은 인간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윤리적 가치를 지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식물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 인간은 동물을 위해 존재한다. 가축이 식량이나 기타 용도로 존재하는 것처럼, 야생동물도 그러하다. 즉 야생동물은 식량이나 다른 기타의 용도, 즉 의복이나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다. 자연은 일정한 목적이나 의도를 위한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이 타당하다면, 그것은 다른 아닌 인간을 위한 것임에 틀림없다.

아퀴나스는 다음과 같은 진술에서 인간중심주의적 특징을 잘 드러냅니다.

야수를 죽이는 것이 죄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신의 섭리에 의해 동물은 자연의 과정에서 인간이 사용하도록 운명 지워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동물을 죽이거나 또는 다른 방식으로 인간은 동물을 사용하더라도, 그것이 결코 부정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신은 노아에게 말했다. “나는 너희에게 목초와 더불어 고기를 주었다.”

베이컨은 과학의 목적은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자연을 사냥하여 인간의 노예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데카르트는 동물은 살아 있기는 하지만 영혼이 없는 기계일 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식이 없으므로 고통도 느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에 비해 칸트는 인간중심주의이면서도 데카르트나 베이컨과 같이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자연을 존중하는 인간의 의무는 다른 인간에 대한 의무에서 도출되는 간접적인 의무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에 따르면 자유롭고 이성적인 행위를 할 능력이 있는 자율적인 존재만이 도덕적 존재입니다. 인간 이외의 생명체는 이러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도덕적 고려 대상에서 배제됩니다. 동물을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직접적으로 동물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포획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가꾸어야 할 자기자신에 대한 의무입니다. 칸트에 따르면 동물에 관한(regarding) 의무는 있으나 동물에 대한(to) 의무는 없습니다.

패스모어는 서양의 인간중심주의 전통에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자연관이 될 수 있는 기초가 있다고 봅니다.

기독교이전 공리주의권 간에 전통적인 서양의 도덕적 가르침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고 인간에게 가르쳐 왔다. 쓰레기를 바다나 대기로 버리는 것,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자식을 많이 출산하는 것, 자원을 소모하는 것은 모두 미래 또는 현재의 이웃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이러한 정도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것에 의해 보충할 필요 없이 우리의 생태적 관심을 정당화하는 데 충분하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스모어는 우리에게 탈인간중심주의와 같은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인 인간중심주의를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현재의 생태 위기를 낳은 것은 인간의 근시안적인 탐욕이며, 이전부터 있었던 인간중심주의 윤리에 기초하여 사려 깊게 행동함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의 이익관심을 떠난 자연의 내재적 가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인간중심주의의 특징

1. 인간의 우월성
2. 이분법 : 인간과 자연을 분리
3. 도구적 자연관 : 유용성 중시
4. 인간만 권리의 주체

○ 인간중심주의 사상가

1. 아리스토텔레스

- “식물은 동물을 위해, 동물은 인간을 위해 존재”
- 지적인 능력을 중시

2. 아퀴나스

- “야수를 죽이는 것은 죄가 아님”
- 동물을 인간이 사용 : 신의 섭리

3. 베이컨

- “자연은 사냥 → 인간의 노예”
- 자연 정복 : 과학의 목적

4. 데카르트

- “동물은 영혼 없는 기계” : 의식이 없으므로 고통도 느끼지 못함
- 의식을 중시

5. 칸트

- 인간만이 권리의 주체, 도덕적 지위 지님
목적으로 대우해야 할 자율적 존재
-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없음
: 간접적 의무는 인정, 동물 학대 금지는 동물과 관련된 인간에 대한 의무
동물에 관한(regarding) 의무는 있으나 동물에 대한(to) 의무는 없음

6. 피스모어(현대의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 1) 새로운 윤리의 필요성 부정 : 생태적으로 계몽된 인간중심주의
생태중심주의
- 2) 인간의 이익관심을 중심으로 환경친화적 삶 추구
(예) 인간의 장기적 이익
- 3) 자연의 내재적 가치 부정 : 본래적 가치는 인정

[질문4] 싱어의 동물중심주의의 핵심 주장은 무엇입니까?

동물 해방론의 선구자는 싱어입니다. 그는 공리주의에 기초하여 동물의 고통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은 주장의 원형은 벤담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싱어가 인용하고 있는 벤담의 주장입니다.

이후에 태어나는 나머지 동물들이 권리를 가질 날이, 비록 그것이 자신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학대했던 사람들의 손에 의해 올지도 모른다. 프랑스인은 이미 흑인이 피부색이 검다는 것만으로, 교정할 겨를도 없이, 압제자에게 넘겨져야 할 아무런 이유도 없음을 발견하였다. 감각을 느낄 수 있는 존재가 다리의 수나 피부의 털, 뼈 골격의 말단의 차이로 인해 같은 운명에 빠져야 한다고 볼 이유는 마찬가지로 불충분함을 인식할 날이 올 수 있다. 그 밖에 극복할 수 없는 경계가 무엇인가? 그것이 이성이라는 기능인가? 아니면 혹은 대화 기능인가? 그러나 의사소통을 잘하는 동물은 물론이거니와 성장한 말이나 개도 태어난 지 하루 또는 일주일밖에 안 된 유아나, 심지어 한달 된 유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합리적이다. 경우가 다르다고 하면, 무엇을 이용할 것인가? 문제는 이성이 갖고 있는가, 말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고통을 받을 수 있는가이다.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은 어떤 존재가 이익 관심을 갖기 위한 전제 조건이며 필요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어린아이가 길가에 있는 돌맹이를 발로 찼다고 해서 돌맹이의 이익관심이 손상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돌맹이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쥐는 발에 채이지 않을 이익관심을 갖습니다. 발에 채인다면 고통을 느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싱어에 따르면 우리는 돌맹이는 도덕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없지만 쥐는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쥐는 도덕적 지위를 갖지만 돌맹이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이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유일한 기준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익은 평등하게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리주의의 기본 입장입니다. 싱어는 인간이 동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는 생각을 버리고 고통에 관하여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존재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물론 동일한 행위가 모든 존재에게 동일한 고통의 양을 유발하는 것은 아닙니다. 채찍으로 말의 등을 때렸을 때보다는 어린이의 얼굴을 때렸을 때 더 큰 고통이 느껴질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나 동물이냐가 아니라 고통감수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주장이 인간과 동물에게 동일한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좋은 음식을 개에게 주는 것은 인간과 개를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좋은 음식이 개에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기에 이것은 도덕적으로 좋은 행위는 아닙니다. 싱어는 동일하게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대우할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과 개가 같은 정도의 두통으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진통제가 한 알이 있을 때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가치가 동등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만약 사람과 개가 동시에 죽어가고 있고 살릴 수 있는 약이 한 알 밖에 없다면 이 약은 사람에게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이 동물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싱어는 이처럼 생명에는 위계가 있음을 인정하지만 고통에 관해서는 인간의 고통을 우선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와 같이 쾌고감수능력을 가진 존재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함에도 인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인간이 동물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인간중심주의에 젖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싱어의 주장입니다. 싱어는 이와 같은 인간중심주의는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동물을 차별하는 종차별주의라고 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성차별, 흑인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차별하는 인종차별이 도덕적으로 옳지 않은 것처럼 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동물을 차별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싱어는 이와 같은 종차별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몇 가지 실천 과제를 제시합니다. 그 가운데는 채식주의가 있습니다. 동물을 고통스럽게 사육하는 공장식 사육을 근절하려면 동물을 식용으로 사용하는 관습이 없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불필요한 고통을 주는 동물 실험을 반대합니다. 이와 같이 동물의 복지를 강조하는 싱어의 입장을 동물해방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싱어 : 동물중심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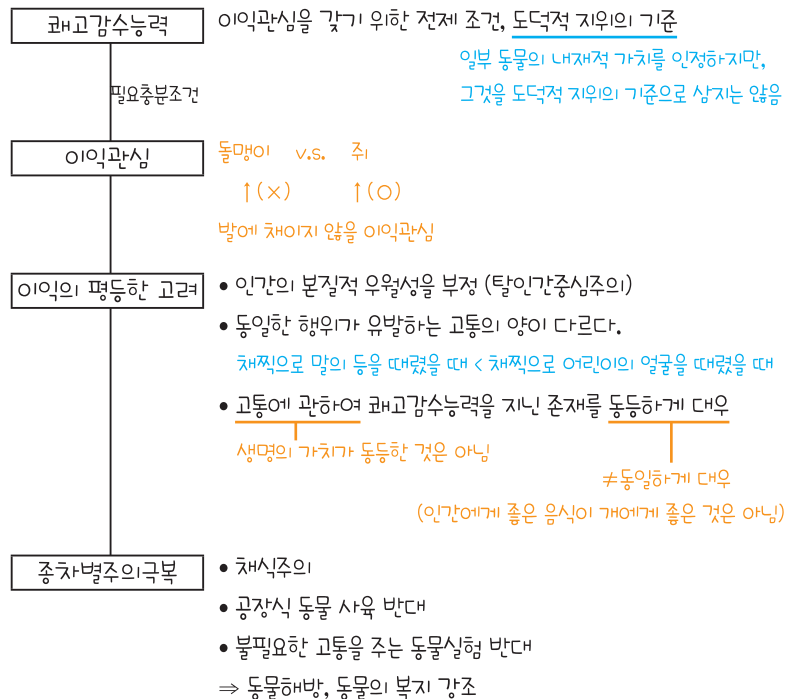
○ 번담의 입장

- 도덕적 고려 대상을 쾌고감수능력을 지닌 모든 존재로 확장

완전히 자란 말, 개 v.s. 한 달이 안 된 유아

⇒ 중요한 것은 이성이나 담화 능력이 아니라 쾌고감수능력이다.

○ 싱어의 입장 : 공리주의



[질문5] 슈바이처의 생명중심주의의 핵심 주장은 무엇입니까?

슈바이처의 생명외경 사상은 초기의 생명중심주의 윤리입니다. ‘생명 외경’에서 ‘외경’이란 놀라움과 두려움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슈바이처는 “나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들의 와중에 있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모든 살려고 하는 의지에게 자신에게 부여했던 생명체의 경외를 부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느낀다. 인간은 다른 생명체 또한 살려고 애쓰는 것을 자기 안에서 경험한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증진하며, 생명을 고양시키는 것을 선으로,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고, 생명에 해를 끼치며, 생명을 억압하는 것을 악으로 본다. 이것이야말로 도덕의 절대적이고 기본적인 원리이다.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은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선이며 존중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는 점에서 모든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가집니다. 슈바이처는 이와 같은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심지어는 모기조차 죽이기를 꺼렸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생명을 해칠 수밖에 없는 필연성을 부정했던 것은 아닙니다. 소는 풀을 먹어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소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는 풀의 생명을 희생시켜야만 합니다. 이런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생명의 차등성이 존재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슈바이처는 생명의 동등성과 생명의 차등성이라는 모순에 대해서 도덕 규칙이 아닌 성품으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그는 생명 외경을 일종의 규칙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슈바이처에게 있어서 생명 외경은 도덕 규칙이라기보다는 도덕적인 성품입니다. 즉, 도덕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갖춘 사람은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생명을 해쳐야 하는 경우에,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책임감을 느끼며 생명을 죽이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자각하는 가운데 행동합니다. 이로써 함부로 연민 없이 살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슈바이처의 입장입니다.

<슈바이처 : 생명외경사상>

○ 생명외경사상

생명 유지 · 고양 ⇒ 선

생명 파괴 ⇒ 악

“생각하는 존재인 인간은 모든 살려고 하는 의지에게 자신에게 부여했던 생명체의 경외를 부여해야 한다고 느낀다.”

○ 생명의 동등성

“모든 생명은 살고자 하는 의지, 그 자체로 신성”

: 생명의 내재적 가치 존중

○ 생명의 차등성

소는 풀을 먹어야 살 수 있음

: 불가피하지만, 그 경우에도 생명에 대한 책임은 있음

* 생명 외경은 규칙이라기 보다는 성품

Quiz

다음 중 옳은 설명에 O, 옳지 않은 설명에 X로 표시하시오.

1. 칸트에 따르면 동물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
2. 칸트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동물에 대한 직접적 의무가 있다. ()
3. 패스모어에 따르면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여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 ()
4. 싱어에 따르면 인간만의 이익관심을 넘어선 탈인간중심주의가 요청된다. ()
5. 싱어에 따르면 인간만을 도덕적 존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
6. 싱어에 의하면 쾌고감수능력의 차원에서는 인간과 동물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 ()
7. 싱어는 어떤 경우에도 동물을 목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8. 싱어는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는 쾌고감수능력을 지닌다고 주장한다. ()
9. 슈바이처에 따르면 어떤 경우에도 생명을 희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
10. 슈바이처에 따르면 생명의 동등성은 예외 없는 도덕 규칙이다. ()
11. 슈바이처에 따르면 도덕적 지위는 생각하는 존재에게 부여해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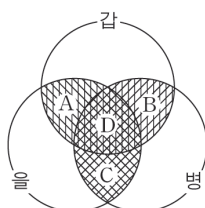
정답

1. O 2. X 3. X 4. O 5. O 6. O 7. X 8. X 9. X 10. X 11. X

핵심 기출 문제(2)

〈2017학년도 수능〉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가)	갑: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존재는 고유의 선을 갖는다. 모든 생물은 내재적 가치를 지닌 동등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을: 우리는 지각, 기억, 믿음 등을 지닌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 그들의 가치는 도덕적 행위 능력과 무관하게 존중되어야 한다. 병: 우리는 대지를 사랑과 존중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대지와 인간의 윤리적 관계는 대지에 대한 사랑, 존경, 감탄 없이는 지속될 수 없다.
(나)	 〈범례〉 A: 갑과 을만의 공통 입장 B: 갑과 병만의 공통 입장 C: 을과 병만의 공통 입장 D: 갑, 을, 병의 공통 입장

〈보기〉

- ㄱ. A: 개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고려 대상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ㄴ. B: 생태계 안정에 기여하더라도 무생물은 도덕적 고려 대상이 아니다.
 ㄷ. C: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의 설정 근거는 아니다.
 ㄹ. D: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해설

모든 생물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주장한 갑은 생명중심주의 사상가 테일러입니다. 삶의 주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자고 주장한 을은 동물중심주의 사상가 레건입니다. 대지에 대한 존중을 강조하는 병은 생태중심주의 사상가 레오폴드입니다.

- ㄱ. 갑, 을의 입장은 개체론이고, 병의 입장은 전일주의입니다. ㄴ. 도덕적 고려 대상을 인간으로 한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입장은 탈인간중심주의로서 갑, 을, 병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 ㄷ. 동물중심주의나 생명중심주의는 무생물을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하지 않고, 생태중심주의는 포함합니다. ㄹ.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를 도덕적 고려 대상의 설정 근거로 삼는 입장은 인간중심주의입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 유무가 도덕적 고려 대상의 설정 근거가 아니라는 주장은 갑, 을, 병의 공통 입장입니다.

정답 ②

심화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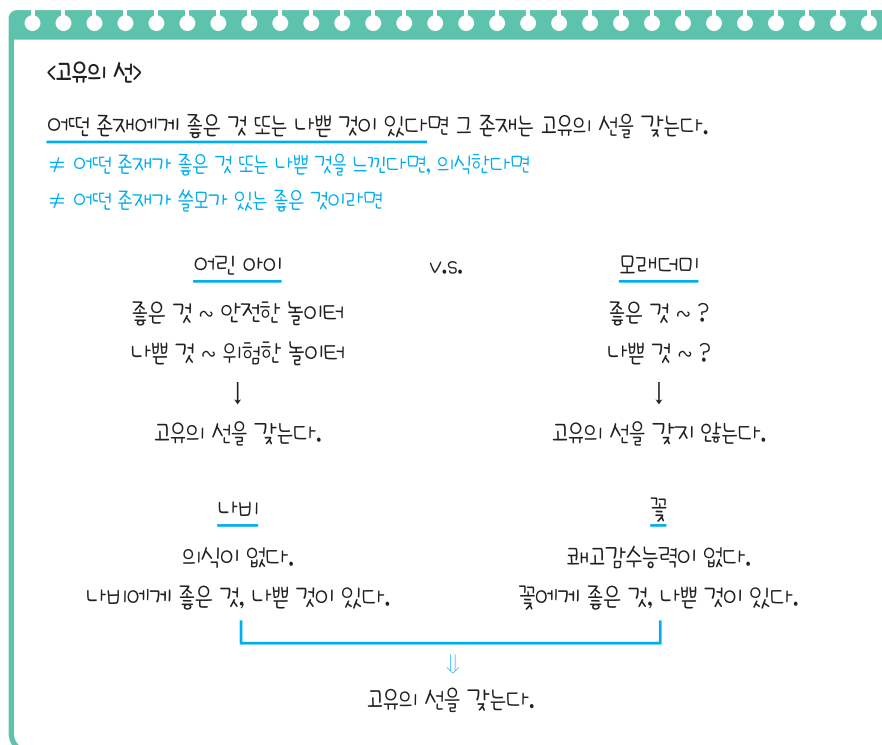
[질문1] 테일러가 말하는 ‘고유의 선’이란 무엇입니까?

테일러에 따르면 어떤 존재에게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있다면 그 존재는 고유의 선을 갖습니다. 아이와 모래더미를 비교해 봅시다. 아이에게 안전한 놀이터는 좋은 것이지만 위험한 놀이터는 나쁜 것입니다. 아이가 어떻게 느끼느냐와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에게는 고유의 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래더미에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주면 모래더미에게 좋은 행위가겠습니까? 아이에게는 우리가 좋은 것을 해 줄 수 있지만 모래더미에게는 이런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모래더미에게는 고유의 선이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고유의 선을 갖기 위해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비는 자기에게 어떤 환경이 더 좋은 환경일 것이라는 의식이 없습니다. 나비는 그런 환경을 의식적으로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환경이 나비에 게 좋고 어떤 환경이 나쁘지 알고 있습니다. 나비에게는 고유의 선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왜락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식물에게는 고유의 선이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꽃에게 유익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꽃에게 해로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추운 곳에 방치하면 꽃은 시들고 죽게 됩니다. 적절한 수분과 통풍, 햇빛을 제공하는 것이 꽃에게 좋은 일이지요. 이처럼 꽃은 왜고감수능력이 없지만 고유의 선을 갖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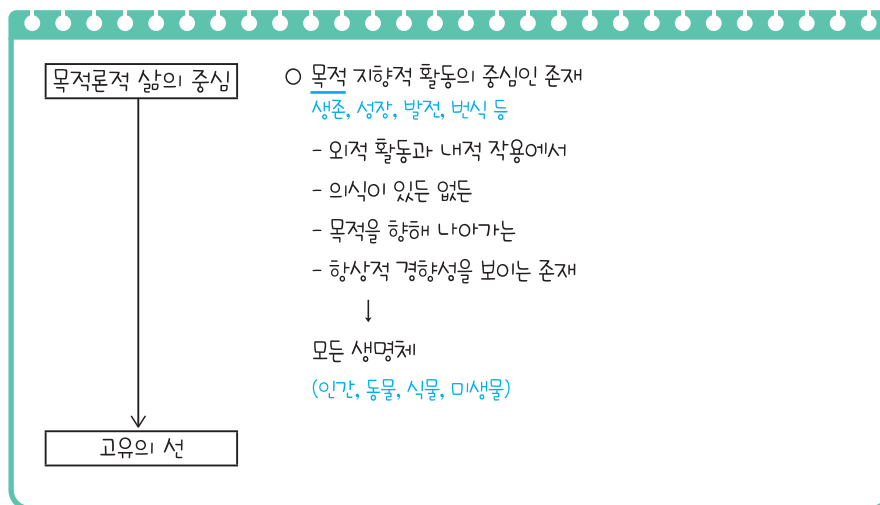
어떤 존재가 고유의 선을 갖기 위해서 반드시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왜고감수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존재에게 고유의 선이 있는 것일까요?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에게 고유의 선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질문2]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무엇이고, 고유의 선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존재가 고유의 선을 갖고 어떤 존재가 그것을 갖지 못하는 것일까요?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들이 고유의 선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생명체는 의식이 있든 없든 성장, 발전, 생존, 번식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체는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 목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이런 의미에서 생명체는 목적 지향적입니다. 각각의 생명체는 이러한 목적 지향적 활동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는 '자연에 대한 존중'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생명체가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그것의 외적 활동뿐만 아니라 내적 작용이 목적 지향적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생존을 유지하고, 자신의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게 하는 생명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해주는 항상적인 경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질문3] 테일러가 말하는 생명중심주의의 핵심적 주장은 무엇입니까?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는 목적 지향적 활동의 중심, 즉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고유의 선을 갖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이 있다면 그 존재는 고유의 선을 갖습니다. 어떤 존재에게 고유의 선이 있다고 해서 인간에게 그 고유의 선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바로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나비에게 좋은 환경이 있고 나쁜 환경이 있다는 것은 사실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실이 있다고 해서 인간이 반드시 나비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의무가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고유의 선이 있는 존재에게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주장으로 그의 이론을 진행시킵니다.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 소중한 것이고 그런 가치에 대해서는 인간이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의 선이 있다는 것은 사실의 영역에 관한 진술이고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가치의 영역에 관한 진술입니다. 사실에 관한 진술로부터 가치에 관한 주장을 직접적으로 연역해내는 것은 논리적으로 오류입니다. 그래서 테일러는 생명중심적 신념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자연 존중의 태도는 자연에 대한 생명중심적 조망이라는 신념 체계에 의해 지지됩니다. 그 신념은 다음 네 가지의 믿음을 핵심으로 합니다.

- (1) 인간은 다른 생명체들이 지구의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인 것과 동일한 의미로 그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 (2) 모든 생명체 각각의 생존은 자신이 처한 물리적 환경에 의해 결정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에서 다른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인간종도 상호 의존적 체계의 통합적 요소이다.
- (3) 모든 유기체 각각은 자기 방식대로 고유의 선을 추구하는 독특한 개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4) 인간은 다른 생명체보다 본질적으로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이상에서 살펴 본 생명중심적 관점의 핵심 신념 (1), (2)의 내용은 마치 생태중심주의자의 주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중심적 관점에서 자연 존중의 태도를 갖기 위해 필요한 믿음으로 테일러가 제시한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테일러는 자연 존중의 태도로부터 다음 네 가지의 의무가 파생된다고 주장합니다.

첫째, 불침해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고유의 선을 갖는 존재에게 해를 입히지 않을 의무로서 유기체를 죽이지 말아야 할 의무, 개체군이나 생명 공동체를 파괴하지 말아야 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둘째, 불간섭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개체적인 유기체의 자유를 제약해서는 안 되는 것과 생태계와 생명 공동체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새를 잡아서 새장에 가두는 행위, 인간이 생태계를 조절하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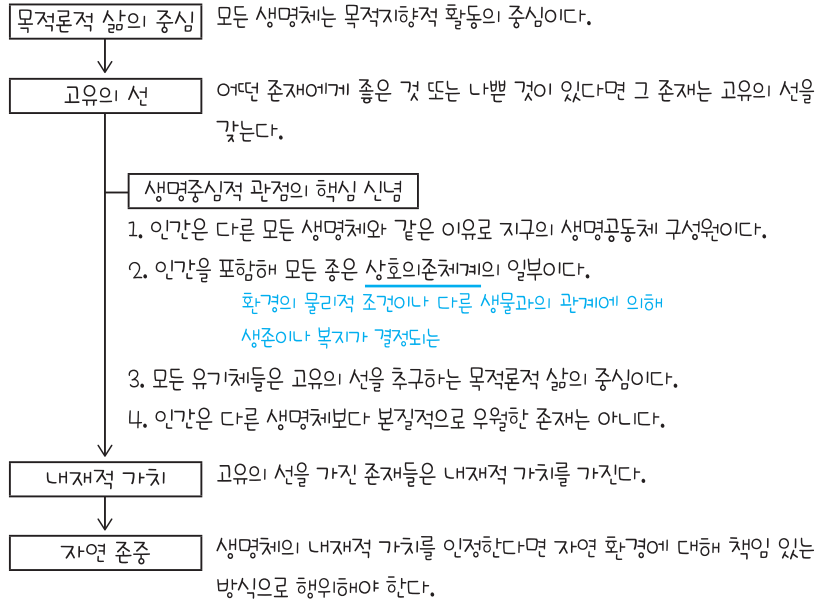
셋째, 성실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동물들을 속이거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깨뜨리지 말아야 할 의무를 포함합니다. 예를 들면 사냥이나 낚시 등이 이 의무를 위반한 사례입니다.

넷째, 보상적 정의의 의무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위의 세 가지 의무를 위반하고 피해를 입혔을 때 인간과 생물 사이에 정의의 형평성을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자연 서식지를 파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 보상이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관련된 동식물의 종음이 증진되도록 하거나 그 개체가 속한 생명 공동체나 생태계에 보상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쯤에서 수렴생 입장으로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테일러의 자연 존중의 의무를 보면 그가 생명을 가진 개체들뿐 만 아니라 생명 공동체나 생태계 전체에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입니다. 테일러에 따르면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생명체 하나하나가 도덕적 고려 대상이지 무생물은 직접적인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바다나 강에 대해 도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서 서식하는 수중 생명체에게는 의무를 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바다나 강에 대한 직접적 의무는 없지만, 거기서 살아가는 물고기와 수초를 위해 바다와 강을 보호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래 언덕이나 협곡, 토지 등도 오염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이는 그것들이 도덕적 지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거기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더 주의해야 할 것은 테일러는 레건과 달리 도덕적 권리를 옹호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테일러와 레건은 특정 대상에게 내재적 가치가 있고 인간에게 이 가치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공통 입장을 보입니다. 하지만 레건이 삶의 주체인 동물의 도덕적 권리가 있음을 강조한 데 비하여,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들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주장하기 위해 도덕적 권리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 존중의 태도나 생명 중심적 신념과 같이 태도, 신념과 같은 개념을 중시하였습니다.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



* 자연 존중의 태도에서 나오는 일반 의무
: 불침해, 불간섭, 성실, 보상적 정의

[질문4] 레건이 말하는 삶의 주체는 어떤 개념입니까?

레건은 삶의 주체인 존재들에게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삶의 주체들은 자기 정체 의식과 미래 의식,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쾌고감수능력 등을 지닙니다. '삶의 주체'라는 개념은 단순히 '살아 있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나아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보다 더 수준이 높은 자질입니다. 레건은 정신적으로 건강한 1년 이상된 포유류들은 삶의 주체라고 했습니다. 이런 존재들은 내재적 가치를 지니며 그것을 보호받을 도덕적 권리가 있습니다. 도덕 행위자인 인간은 삶의 주체들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집니다. 레건은 삶의 주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믿음과 욕구를 갖고, 지각과 기억을 하고, 그들 자신의 미래를 포함하여 미래에 대한 감각을 갖고, 즐거움과 고통을 느끼는 정서적 생활을 하고, 선택적 및 복지적 이해 관심을 갖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자신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시간상의 변화에도 심리-물리적 동일성을 확보하고, 그들이 다른 존재에게 유용하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다른 존재의 이해 관심의 대상이 된다는 것에 대해 논리적으로 독립해서 그들의 경험적 삶이 자신에게 이롭거나 해롭다는 의미에서 개별적인 복지를 갖는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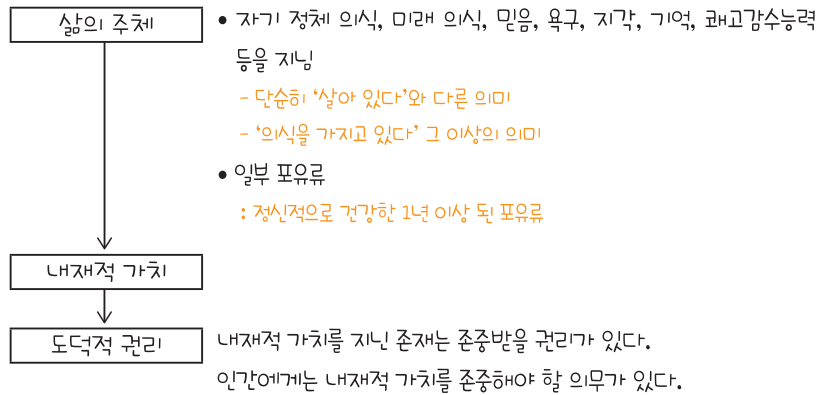
싱어는 동물의 이익관심을 인간과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동물의 복지를 중시합니다. 이와 같은 입장에 따르면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더라도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인간과 동물을 포함하여 전체적 이익을 증진시킨다면 그 실험은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논리적으로는 동물을 쾌적한 환경에서 고통 없이 사육하고 고통을 느끼지 않는 방법으로 도살하면 그 동물을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도 도덕적으로 정당화됩니다. 그러나 레건이 주장하는 동물의 권리를 인정한다면 이런 행위들은 모두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레건이 주장하는 도덕적 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도덕적 지위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그 둘은 같은 개념인가요? 도덕적 지위를 지닌 모든 존재는 도덕적 권리도 있는 것일까요? 환경 윤리를 공부하다보면 수험생들에게 생기는 질문들입니다. 먼저 레건이 말하는 도덕적 권리가 어떤 것인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이므로 인간을 단지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유용한가와 별도로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의 주체이고 내재적 가치를 갖습니다. 삶의 주체인 인간은 살해나 약탈, 공격, 고문 등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고, 타인으로부터 부당하게 방해받지 않을 자유를 향유해야 합니다. 도덕적으로 이와 같이 존중받아야 할 대상에게는 도덕적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권리가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인간은 그 권리를 존중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칸트는 이런 권리와 의무의 주체는 오직 인간뿐이라고 보았으나 레건은 동물 중에서도 삶의 주체가 있고 이들은 인간이 지닌 것과 같은 도덕적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습니다.

도덕적 지위는 도덕 공동체 내에서 차지하는 일정한 위치를 말하는데, 도덕 행위자로부터 도덕적 고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면 모두 도덕적 지위를 갖습니다. 레건은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와 도덕적 권리를 지닌 삶의 주체라면 모든 도덕적 행위자에 의해 도덕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삶의 주체들은 도덕적 권리가 있고 도덕적 권리가 있는 존재들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건에게 있어서 도덕적 권리의 주체와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는 일치합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레건은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좁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싱어와 레건의 입장을 비교하여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팬지와 오랑우탄과 같은 대형유인원 종의 동물들이 삶의 주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도덕적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은 레건뿐 아니라 싱어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점이 싱어의 주된 입장은 아닙니다. 레건이 내재적 가치에 기반한 도덕적 권리를 강조하는 의무론의 입장이라면 싱어는 이와 달리 공리주의적 입장에 서 있습니다. 싱어의 공리주의에서는 도덕적 지위의 근거를 쾌고감수능력에 둡니다. 이런 면에서 싱어는 레건보다 도덕적 지위를 인정하는 범위가 더 넓습니다. 하지만 쾌고감수능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내재적 가치를 옹호하기는 어렵습니다. 쾌고감수능력은 일정한 자격이라기 보다는 고통과 쾌락의 양을 따져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내재적 가치는 그 양의 크기가 존재하지 않는 절대적 자격입니다. 인간의 내재적 가치든 동물의 내재적 가치든, 내재적 가치에는 양적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쾌고감수능력은 정도의 문제라서 절대적 자격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대신 고통과 쾌락에 대해서는 동등하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타당하게 됩니다. 그 동안 인간의 고통은 동물의 고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싱어의 주장입니다. 이것은 인간과 동물이 평등한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뜻이 아니라 고통에 관하여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달리 말하면 싱어의 입장에서는 동물은 고통에 관하여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는 있으나 그들의 내재적 가치를 절대적으로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는 주장은 정당화하기 어렵습니다. 싱어는 동물의 내재적 가치에 기반한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부러 고통에 관한 평등성을 주장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내재적 가치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물에게 합리성이나 자율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입증할 것이 요구되는데 굳이 이런 복잡한 문제를 거론할 필요 없이 동물에게 인간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좋은 방법이 쾌고감수능력에 기초하여 평등성을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건 - 동물중심주의>



<싱어와 레건의 입장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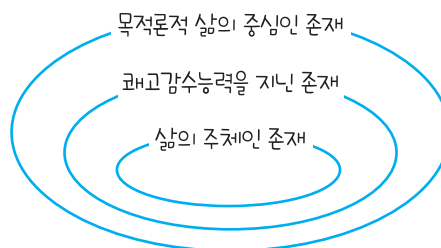
○ 공통점

- 1) 동물의 도덕적 지위 인정
- 2) 일부 동물의 내재적 가치와 도덕적 권리 인정
대형 유인원 (침팬지, 오랑우탄, 고릴라 등)

○ 차이점

	싱어	레건
기본 입장	공리주의 : 행위의 결과, 고통이 얼마나 발생 하는지 판단	의무론 : 행위 자체가 동물의 권리를 침해 하는지 판단
핵심 주장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
도덕적 지위의 근거	고통감수능력	삶의 주체의 도덕적 권리

* 도덕적 지위의 범위



[질문5] 도덕적 행위 능력은 무엇이고, 삶의 주체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어떤 존재에게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다고 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우선 도덕적 의무를 이해하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도덕적으로 해야 할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도덕적 의무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행위 결정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도덕적 행위 능력을 넓게 보면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도덕적 행위 능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좁게 보면 한 가지 요건을 더 필요로 하는데 그것은 책임 능력입니다. 이는 행위자의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행위자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문제들에 기초해 보면 도덕적 행위능력은 좁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의미로 보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요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도덕적 행위 주체라 할 수 없고 이런 존재를 도덕무능력자라고 합니다. 예컨대 유아나 혼수상태의 인간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도덕무능력자입니다. 일부 동물에게서 나쁜 행동과 좋은 행동을 구분하는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책임을 지을 만큼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의미의 도덕적 행위 주체는 오직 인간 중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인간중심주의자 뿐만 아니라 탈인간중심주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모두 인정합니다.

도덕적 행위 주체와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것은 과연 도덕적 행위 주체들만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행위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도덕적 권리도 인간만이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간중심주의는 이런 입장에 기초하여 도덕 공동체의 구성원을 오직 인간으로 한정짓고 인간에게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합니다. 이와 달리 싱어와 레건은 도덕 공동체의 범위를 일부 동물에까지 확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레건은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니더라도 삶의 주체라면 도덕적 권리를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 도덕적 행위 능력

- 도덕적 의무 이해 능력
- 의무에 따른 행위 결정 능력
- 책임 능력 : 그의 결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이 능력을 모두 갖추면 : 도덕행위자 (도덕적 행위 주체)

이 능력이 하나라도 결여되면 : 도덕무능력자
(예) 유아, 혼수상태 인간

* 도덕적 행위 주체 : 오직 인간
모든 입장의 공통점

○ 레겐의 입장

- 도덕무능력자도 삶의 주체일 수 있다.
-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 도덕적 권리, 도덕적 지위를 갖는다.

[질문6] 레오폴드가 주장하는 대지 윤리는 무엇입니까?

레오폴드(1887~1948)가 죽은 후에 출판된 「모래군의 열두 달(A Sand County Almanac)」의 한 장이 ‘대지 윤리’라는 논문입니다. 이 논문은 트로이 전쟁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 장군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는 자기가 전쟁에 나가 있는 동안 올바르게 처신하지 못한 열두 명의 여자 노예를 교수형에 처합니다. 그러면서도 조금도 양심에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노예를 재산으로 여겨 도덕적인 고려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여자들은 남자들 모든 인간은 당연히 도덕적 고려 대상 즉 도덕적 지위를 지닌 존재로 여깁니다. 그만큼 도덕적 고려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레오폴드는 이제 도덕적 고려 범위가 인간을 넘어 전체 생태계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대지 윤리는 토양, 물, 동물, 또는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하도록 공동체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공동체는 생명 공동체라 불리기도 하는데, 레오폴드에게 있어서 생명공동체는 전체로서의 생태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집합적으로 ‘대지’라고 합니다. 테일러가 ‘생명공동체’라고 했을 때는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명체, 즉 인간, 동물, 식물, 미생물들로 이루어집니다. 레오폴드가 말하는 생명공동체에는 이들 뿐 아니라 흙, 물과 같은 무생물적 환경도 포함됩니다. 이들은 전체로서 하나의 유기체를 이루고 있어서 ‘건강한 대지’, ‘병든 대지’로 불릴 수 있는, 마치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간주됩니다. 레오폴드는 윤리가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인간과 대지의 관계를 포함해야 하고, 거기로부터 인간과 동식물 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가 발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레오폴드의 대지 윤리는 전일주의에 기초한 환경 윤리의 선구적 주장입니다. 이는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 그 이상이라는 관점에 기초하여 자연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대지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윤리는 개체를 넘어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생명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그 구성원인 흙, 물, 식물, 동물 등은 계속 존재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속 존재한다는 것은 개체의 차원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생명 개체는 죽게 되니까요. 레오폴드가 주장하는 것은 개체의 권리가 아니라 종이 멸종하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생태계의 온전성은 어떤 종도 멸종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할 때 달성됩니다. 레오폴드 당시에 환경 운동은 경제적 효용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환경 운동과 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던 레오폴드는 “경제적 효용이 없는 생명체라 할지라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생존’이라는 생태적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도 생존권은 개체들의 생존권이러기보다는 생명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종이 멸종하지 않도록 하는 생존권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레오폴드는 내재적 가치라는 용어를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저작을 통해 보건대 그는 생물 개체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에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기초하여 그 구성원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평생 사냥을 취미로 즐겼던 그의 사상을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는 도덕적 고려 범위에 토양, 물, 식물, 동물을 포함할 것을 주장하면서도 자신의 대지 윤리가 인간에게 이 ‘자원’들의 사용, 관리, 변화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는 동식물을 ‘자원’으로 보는 관점을 배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이 그가 생물 개체들에게 내재적 가치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해석을 뒷받침해 줍니다. 레오폴드가 전체 뿐 아니라 개체의 내재적 가치도 인정했다고 보는 견해도 없지는 않으나 확실한 것은 개체보다 전

체의 가치를 중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레오폴드는 자신의 생태중심주의적 입장을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습니다.

“생명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그리고 그 반대면 그르다.”

환경 윤리에서 도덕 판단의 유일한 기준으로 생명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제시한 것입니다. 인간중심주의 관점에서는 인간에게는 내재적 가치가 있지만 자연은 인간에게 경제적으로 유용한지를 기준으로 도구적 가치만 지닌 것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레오폴드는 이와 같은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인간은 자연의 정복자가 아니라 생명공동체의 평등한 여러 구성원 중 하나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동료 구성원들인 동식물이나 무생물적 환경, 이를테면 사막이나 습지 등을 존중해야 하고 전체 생태계를 존중해야 합니다. 이제는 인간을 중심으로 도덕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생명공동체를 중심으로 도덕 판단을 해야 합니다. 생명공동체의 내재적 가치를 보전하는 행위는 옳고 파괴하는 행위는 옳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레오폴드의 입장을 생태중심주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대지의 사용을 경제적 관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윤리적, 미학적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1. 도덕확대주의

“대지 윤리는 토양, 물, 식물, 동물, 또는 집합적으로 대지를 포함하도록 공동체의 영역을 확대하는 것”

cf) 테일러의 생명 공동체 : 인간, 동물, 식물, 미생물로 구성
community of life

레오폴드의 생명 공동체 : 대지를 포함
biotic community = 대지공동체, 생태계

“인간과 대지의 관계, 그리고 거기서 발전되는 인간과 동식물 간의 관계에 대한 윤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대지는 아직도 오디세우스의 노예 소녀들처럼 재산으로 취급된다.”

2. 전일주의

- 대지는 단순히 품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이다.
- 윤리는 개체를 넘어 공동체로 확대되어야 한다.
- 생명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그 구성원들이 계속 존재할 권리는 보장되어야 한다.
↳ 품, 물, 식물, 동물 ↳ 멸종하지 않게 할 의무
- 경제적 효용이 없는 생명체라 할지라도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최소한 ‘생존’이라는 생태적 권리를 갖는다.
- 대지 윤리가 인간에게 이 ‘자원’들의 사용, 관리, 변화를 금지하지 않는다.
↳ 품, 물, 식물, 동물



개체보다 전체의 가치를 중시함

3. 생태중심주의

“생명공동체의 온전함, 안정,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경향에 따라 옳다.”

- 인간은 정복자가 아니라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임
: 동료 구성원과 전체 생태계를 존중해야 함
- 대지의 사용을 경제적 관점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윤리적, 미학적 측면도 고려함

[질문7] 심층생태주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심층 생태주의라는 용어는 네스(Naess)라는 사상가가 처음 사용했습니다. 산업 사회에서 환경 문제가 심각해지자 선진국 사람들의 건강과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 오로지 오염과 자원 고갈에 맞서 싸우는 환경 보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네스는 이 운동을 ‘표층생태주의(shallow ecology)’라고 규정하며 이는 환경 문제의 원인을 치료하지 못하고 단지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합니다. 네스로 대표되는 심층생태주의에서는 환경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다름 아닌 인간 중심적 세계관을 생태 중심적 세계관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네스는 ‘환경 속의 인간’으로 표현되는 인간중심주의 자연관 대신 ‘관계적인 전체 장(場)’ (relational total field)을 중시합니다. 여기서 ‘환경 속의 인간’이란 환경을 객체로 보고 이에 대립되는 주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에 비해 네스는 생태계는 전체가 ‘생명의 그물’을 이루고 있고 인간은 그 속의 하나의 매듭이라고 봅니다.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은 인간과 평등한 다른 매듭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내재적 가치를 갖는 것처럼 다른 구성원들도 내재적 가치를 갖습니다.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내재적 가치와 본래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며 내재적 가치를 본래적 가치와 동일한 것으로 봅니다. 이에 비해 인간 중심주의 환경 윤리에서는 본래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분하며 자연의 본래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내재적 가치는 부정합니다.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전일주의에 입각하여 전체 생태계를 하나의 생명으로 여기며 개체들은 그 구성원으로서 생명을 지니는 것으로 규정됩니다. 심층 생태주의에서 말하는 생명은 테일러가 말하는 생물학적인 생명체뿐 아니라 강과 산, 생물 종, 생태계에 이르기까지 모두 생명으로 간주되는 넓은 의미의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생태계의 모든 구성원들 즉, 인간, 식물, 동물, 생물학에서 말하는 무생물까지도 모두 생명이며 평등한 내재적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봅니다.

네스가 추구하는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큰 자아’를 중시합니다. 작은 자아는 나와 다른 존재를 대립적으로 생각하여 오직 ‘나’ 하나만을 자아로 여깁니다. 그런데 마음을 넓히면 우리는 나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내가 속한 민족을 나라고 여겨 자아 개념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나와 남의 경계선을 허물어뜨리고 자아를 확장해 나가면 인간 종만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태계 전체를 나와 동일시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는데, 이때의 자아가 네스가 말하는 ‘큰 자아’입니다. 큰 자아는 모든 생명체 각각의 자아를 포함하여 타자와 일체 의식을 갖게 되고 이타 의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진정 생태계와 그 모든 구성원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며 공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네스는 심층 생태주의가 불교와 유사점이 많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들이 원인과 조건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나와 남이 둘이 아니므로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심층생태주의>

○ 주창자 : 네스

○ 주요 원칙

1) 세계관의 근본적 변화 주장 : 인간 중심 → 생태 중심

증상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적 대책 주장

2) 자연의 본래적 가치 존중

생태계 전체와 생명 개체

※ 본래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를 구분하는 것을 반대함

3) '환경 속의 인간' 대신 '유기적인 전체 장'을 중시

↳ 환경이란 객체에

대립되는 주체로서의

인간

↳ 생명체는 '생명의

그물' 속의 하나의

매듭

4) '큰 자아' 추구

모든 생명체 각각의 자아 포함

⇒ 타자와 일체 의식 ⇒ 이타 의식

* 불교와 유사점이 많음

: 인드라마, 자타불이, 자비, 공생 등

모든 존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의 상징!

○ 표층 생태주의와 심층 생태주의

표층 생태주의	심층 생태주의
• 인간 중심주의 • 단기적 (근시안적) • 물질적 풍요 • 과학기술지향 • 보수적 : 환경개량주의 • 전문적 철학	• 생태 중심주의 • 장기적 (심층적) • 정신적 풍요 • 초과학적 직관 중시 • 급진적 : 가치관의 변혁 추구 • 대중적 사회 운동

[질문8] 개체론적 관점이란 무엇입니까?

환경 윤리에서 개체론적 관점은 생태계 전체나 생물 종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개체 하나하나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 관점입니다. 이 관점은 전체는 부분의 합이요 전체를 부분으로 나눠서 부분을 이해하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다는 방법론적인 입장에 기초합니다. 반면, 전일주의는 이와 같은 환원론적 입장을 비판하면서 전체는 단순한 부분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특성을 지닌 독자적 존재라고 보는 관점에 기초합니다. 개체보다 전체를 중시하며 도덕적 지위를 우선적으로 전체에 부여합니다. 개체들은 개체 자체로서 존중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부분으로서 가치를 갖게 됩니다. 싱어, 레건, 슈바이처, 테일러는 개체론에 해당하고 레오폴드와 심층생태주의는 전일주의에 해당합니다.

싱어는 쾌고감수능력을 기준으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는데, 쾌고감수능력은 각각의 동물들이 갖는 것이지 동물 종이 갖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통증을 느끼는 것은 한 마리의 개구리이지 양서류 전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레건의 경우, 삶의 주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그것을 보호받을 도덕적 권리의 주체라고 하는데, 여기서 삶의 주체는 집합적으로 포유류가 아니라 포유류에 해당하는 동물들 중 일부 동물 하나하나입니다.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에서는 개별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를 존중하자고 주장합니다. 테일러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들은 고유의 선을 갖는데, 인간에게는 자연 존중의 태도에 기초하여 이런 존재들의 내재적 가치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인 존재들은 개별 생명체들이지 생물 종이나 생명 공동체, 생태계가 아닙니다. 테일러는 생명을 불가피하게 해치게 된 경우, 그 생명체가 속한 종이나 생태계에 정의롭게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생물 종이나 생태계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테일러의 입장은 개별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에 기초하여 생명 공동체나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으로서 무생물적 환경을 존중하는 것이지 여기에 내재적 가치나 도덕적 지위를 부여한 것은 아닙니다.

레오폴드는 도덕적 고려의 범위를 인간에서 동물, 식물, 무생물까지 하나씩 넓혀갔다가보다는 인간에만 부여하였던 도덕적 지위를 생태계 전체로 옮기고 그 안에서 인간과 다른 구성원들의 관계를 윤리적으로 재구성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 지위를 갖는 개체들의 종류가 늘어났다고보다는 도덕적 지위가 개체에서 전체로 옮겨졌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레오폴드는 도덕 판단의 기준을 생명공동체의 온전성, 안정, 아름다움으로 보았습니다. 그에 따르면 생태계의 안정을 해치는 생명 개체는 인위적으로 사냥을 해서라도 개체 수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테일러의 입장에서는 금지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레오폴드의 사상에는 인간 중심적인 환경 윤리를 생태중심적인 세계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기초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그는 심층 생태주의의 사상적 뿌리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생태계 구성원의 내재적 가치에 대해 선명한 주장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 심층 생태주의와 다른 점입니다. 심층 생태주의에서는 레오폴드와 마찬가지로 전체 생태계를 생명을 지닌 하나의 유기체로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그 구성원들에게 내재적 가치를 부여합니다.

○ 개체론 : 생태계 전체가 아닌 개체에 도덕적 지위 부여

1. 싱어 : 고통감수능력은 개체에 있음
2. 레건 : 삶의 주체는 개체임
3. 슈바이처 : 개별 생명체의 내재적 가치 존중
4. 테일러 : 목적론적 삶의 중심은 개별 생명체

○ 전일주의 : 개체보다 전체의 가치를 중시

- 레오폴드, 심층 생태주의

○ 테일러와 레오폴드의 입장 비교

내용	테일러	레오폴드
1) 생태계는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이다.	X	O
2) 물, 흙도 생명공동체의 구성원이다.	X	O
3) 사막, 습지, 호수도 도덕적 고려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X	O
4) 도덕적 관심이 개체를 넘어 공동체로 확장되어야 한다.	X	O
5) 인간 중심적 태도를 지양하고 자연을 존중해야 한다.	O	O
6) 생태계는 상호의존적 체계를 이루고 있으며 인간과 모든 생물 종은 생태계의 필수적 구성 요소이다.	O	O
7)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 생물 개체수를 인위적으로 조절해서는 안 된다.	O	X
8) 내재적 가치를 지닌 주체는 생태계가 아니라 개별 생명체이다.	O	X
9) 개체보다 생명 공동체의 가치를 더 존중해야 한다.	X	O
10) 생물 종은 생태계의 안정을 위해 '종의 존속'이라는 생태적 권리를 갖는다.	X	O

Quiz

다음 중 옳은 설명에 O, 옳지 않은 설명에 X로 표시하시오.

1. 테일러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
2. 레건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삶의 주체인 동물의 내재적 가치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
3. 레건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 주체가 아닐지라도 도덕적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4. 테일러에 따르면 인간은 자연 전체에 대해 직접적인 도덕적 의무를 지닌다. ()
5. 테일러에 따르면 동물과 식물을 윤리적으로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
6. 레오폴드는 테일러와 달리 생태계 전체의 내재적 가치를 기준으로 도덕 판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7. 칸트는 식물을 보존하는 것이 간접적인 의무로 성립 가능하다고 본다. ()
8. 테일러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생명체도 내재적 가치가 있다고 주장한다. ()
9. 테일러는 무생물적 자연 환경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
10. 레건은 쾌고감수능력을 도덕적 고려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11. 레건은 동물을 도덕적 행위의 주체로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12. 레건은 칸트와 달리 동물 학대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13. 심층생태주의에서는 환원주의적인 자연관을 거부한다. ()
14. 심층생태주의에서는 전일주의적 관점에서 세계관의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한다. ()

정답

1. O 2. O 3. O 4. X 5. O 6. O 7. O 8. O 9. X 10. X 11. X 12. X 13. O 14. O